

치위생학 전공 학생의 학업관련 특성과 ASE 모델 요인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유린¹ · 성미경² · 강현경^{3*}

¹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²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³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The Effects of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and ASE Model Factors on Learning Persist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Yu-Rin Kim¹, Mi-Gyung Seong², Hyun-Kyung Kang^{3*}

¹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Masan College University, Professor

³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and ASE Model factors on learning persist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from April to May 2022 among 229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Busan and Gyeongnam.

Results: Learning persistence was higher for 4-year students compared to 3-year students.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the department study group, the more the department mentoring program, the more major club activities, and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the non-specialty program, the higher the learning persistence. The factors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learning persistence were attitude ($\beta=0.519$), social support ($\beta=0.211$), and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beta=0.140$) in that order.

Conclusions: It can be seen that the better the student's learning attitude,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more positive the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Keywords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Academic Persistence, ASE Model, Dental Hygiene, Learning Persistence

Received on Aug 10, 2022. Revised on Aug 30, 2022. Accepted on Aug 30, 2022.

* Corresponding Author (E-mail: icando@silla.ac.kr)

I. 서론

급속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함께 고등교육은 지속적으로 팽창해왔으며,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장으로 인해 고학력화 및 대학서열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1]. 출산율의 저하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만들고 대학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의 선호현상을 야기하고 있고, 낮은 취업률로 인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이동과 이탈 현상을 겪고 있다[2]. 중도탈락은 대학재정 및 대학교육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의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은 학교 운영에 매우 중요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학 교육

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학생들의 학업 중단이 높은 이유는 학교 부적응, 부모의 관여로 현재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요구, 학업 태만 등의 요인[4], 성취동기, 학교 몰입, 학교 참여 등과 경제·사회적 상황, 지리적 접근성 등이 제시된 바 있고[5], 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가 학업 중단 의도를 결정한다[6]. 박과 김[2]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요인은 전공의 취업 전망도, 대학 만족도, 대인관계가 낮을수록 편입과 휴학 및 자퇴의 가능성이 높다. 중도탈락은 대학 재학 중의 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학생이 특정 기간에 수학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업 지속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중도 탈락을 해결하는 것은 현시대의 대학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치위생학 전공의 중도 탈락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는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태도-사회적영향-자기효능감(Attitude-Social Influence-Self Efficacy:ASE Model)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행위수행 의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모형이며[8], 개인이나 집단이 소속된 사회의 분위기, 압력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영향 개념을 추가하여 건강 행위 의도를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9]. ASE Model은 행위의 의도를 결정하는데 특정 행동과 사회적인 영향 및 자기효능이며 사람들이 마주치는 사회적 영향과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다[10]. 교육 관련 행위에 ASE Model을 적용하는 경우의 태도는 학습에 관한 긍정이나 부정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SE Model을 적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흡연 중학생의 금연 의도의 영향[9], 학업스트레스와 ASE Model이 학업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8]이 있다.

학업지속의향(Learning Persistence)은 학습자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대학 운영의 관점에서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학업지속의향은 자기효능감과 연관이 있고, 부정적 정서 중 분노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11]. 치위생학 전공 학생의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업관련 특성과 ASE Model을 기반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도 탈락과 관련한 연구에 비해 학업 지속, 학업 복귀, 학업 유지에 관련된 연구는 드문 편이며, 치위생학 전공 역시 최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입학과 동시에 어려운 전공 교과 내용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국가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학업 장애요인을 낮추어 학업을 지속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지도와 상담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독립변수를 22개로 계산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는 230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79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229명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연구 배경,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뒤에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연구 방법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성별, 학제 및 학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과 스터디그룹 참여 유무,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유무, 학과 전공동아리 활동 유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총 7문항이다.

2) 학업관련 특성

학업관련 특성은 친구들과의 관계 정도, 학업에 대한 어려움, 학과적성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총 8문항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문항 3문항은 역 코딩하여 분석하였고 점수 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40점이었다. 대학생활적응력[12]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학업관련 특성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관련 특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3) 태도-사회적영향-자기효능감(Attitude-Social Influence-Self Efficacy:ASE Model)

태도-사회적영향-자기효능감(ASE Model)은 이 등[8]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ASE Model은 건강 행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 사회인지, 변화단계의 이론을 기초로 개발되었고,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였다[9]. 교육 관련 행위에 ASE Model을 적용하였고, 태도는 학습에 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며, 학습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 경향성으로 학습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태도 9문항, 사회적영향(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지지)은 6문항, 자기효능감 7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의미한다.

4) 학업지속의향

학업지속의향은 김효정 외[11]가 사용한 연구도구 중 학업지속의향 부분을 참고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 문항은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7.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각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학업 관련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t-test or ANOVA 분석을 하였고, 측정 변수들의 학업지속의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도구의 신뢰도분석

연구대상자의 연구도구의 평균과 신뢰도 계수는 <Table 1>과 같다. 학업관련 특성은 40점 만점에 26.79점이었고 Cronbach's α 는 0.635였다. 태도-사회적영향-자기효능감(Attitude-Social Influence-Self Efficacy:ASE Model)에서 학습태도는 45점 만점에 30.71점이었고 Cronbach's α 는 0.867이었다. 사회적 영향은 30점 만점에 23.82점이었고 Cronbach's α 는 0.948이었다. 세부 항목으로 사회적 규범은 11.87점, 사회적지지는 11.95점이었으

<Table 1> Reliability survey (N=229)

	Mean±SD	Cronbach's α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26.79±3.11	0.635
A Attitude	30.71±5.55	0.867
S Social Influence	23.82±4.58	0.948
- Social Norm	11.87±2.30	0.868
- Social Support	11.95±2.37	0.917
E Self Efficacy	22.18±4.98	0.788
Learning Persistence	37.52±4.86	0.685

며 각 Cronbach's α 는 0.868과 0.917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35점 만점에 22.18점이었으며 Cronbach's α 는 0.788이었고 학업지속의향은 50점 만점에 37.52점이었으며 Cronbach's α 는 0.685로 나타났다. 연구도구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Table 1>.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을 조사한 결과, 대학교 유형에서는 4년제 재학 학생들(M=38.28)이 3년제 재학 학생들(M=36.82)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304, p<0.05). 학과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 경우(M=39.09)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M=37.23)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918, p<0.05).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M=39.74)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M=37.31)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711, p<0.05). 학과 전공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M=38.76)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M=37.13)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244, p<0.05).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M=39.16)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M=36.97)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996, p<0.05)<Table 2>.

3. 측정변수들과 학업지속의향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수들과 학업지속의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학업지속의향과 학업관련 특성(r=0.386, p<0.001), 학업태도(r=0.668, p<0.001), 사회적규범(r=0.497, p<0.001), 사회적지지(r=0.525, p<0.0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교 유형(r=0.151, p<0.05), 학과스터디 그룹(r=0.138, p<0.05), 멘토링 프로그램(r=0.138, p<0.05), 학과 전공동아리(r=0.143, p<0.05), 비교과 프로그램(r=0.195, p<0.001)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측정변수의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측정 변수들의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51으로 나타나 51%의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7.10, p<0.001). 연구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에 가장 큰 영향

<Table 2> Learning persistence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t or F	p*
Sex	Men	13(5.7)	35.85±6.09	-1.277	0.203
	Women	216(94.3)	37.62±4.77		
School system	4 year	109(47.6)	38.28±4.60	2.304	0.022*
	3 year	120(52.4)	36.82±5.00		
Grade	Senior	33(14.4)	39.15±3.83	2.114	0.099
	Junior	60(26.2)	36.98±3.99		
	Sophomore	81(35.4)	36.91±5.40		
	Freshman	55(24.0)	38.00±5.26		
Study group	No	194(84.7)	37.23±5.07	-2.918	0.005*
	Yes	35(15.3)	39.09±3.08		
Mentoring program	No	210(91.7)	37.31±4.91	-2.711	0.012*
	Yes	19(8.3)	39.74±3.60		
Major Subjects	No	175(76.4)	37.13±4.89	-2.244	0.027*
	Yes	54(23.6)	38.76±4.59		
Extracurricular Program	No	172(75.1)	36.97±4.80	-2.996	0.003*
	Yes	57(24.9)	39.16±4.69		
Total		229(100.0)			

Dependent variable: Learning persistence, *p<0.05

<Table 3> Correlation with learning persistence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386**	1									
3	0.668**	0.347**	1								
4	0.091	0.096	0.202**	1							
5	0.497**	0.298**	0.486**	0.162*	1						
6	0.525**	0.311**	0.522**	0.170*	0.930**	1					
7	0.151*	0.088	0.252**	0.087	0.182**	0.197**	1				
8	0.138*	-0.010	0.099	0.102	0.071	0.080	-0.130*	1			
9	0.138*	0.072	0.039	0.008	0.134*	0.107	0.096	0.180**	1		
10	0.143*	0.005	0.194**	0.166*	0.116	0.177**	-0.274**	0.164*	0.206**	1	
11	0.195**	0.105	0.130*	0.205**	0.212**	0.165*	-0.098	0.205**	0.339**	0.323**	1

1;Learning Persistence, 2;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3;Attitude, 4;Self Efficacy, 5;Social Norm, 6;Social Support, 7;School system, 8;Study group, 9;Mentoring program, 10;Major Subjects, 11;Extracurricular Program

*p<0.05,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태도($\beta=0.519$), 사회적지지($\beta=0.211$), 학업관련 특성($\beta=0.140$)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습태도가 좋을 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관련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Learning Persistence

	B	S.E	β	t	p^*
Constant	13.439	2.477		5.426	0.000**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0.218	0.079	0.140	2.758	0.006*
Attitude	0.454	0.050	0.519	9.021	0.000**
Social Support	0.432	0.115	0.211	3.765	0.000**
Self Efficacy	-0.077	0.048	-0.079	-1.628	0.105
School system	0.307	0.491	0.032	0.625	0.533
Study group	0.833	0.654	0.062	1.273	0.204
Mentoring program	0.892	0.902	0.051	0.989	0.324
Major Subjects	-0.213	0.597	-0.019	-0.357	0.721
Extracurricular Program	0.824	0.592	0.073	1.390	0.166

F(p)=27.10(0.000), $R^2=0.53$, Adjusted $R^2=0.51$, Durbin-Watson=1.950, Dependent variable: Learning Persistence *p<0.05,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V. 고찰

본 연구는 학업관련 특성과 ASE Model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치위생학 전공 학과 교수들의 학생 지도 방향과 학업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중도탈락과 지속적으로 대학에 적응 못하고 있는 학업 지속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의 중도 탈락 문제는 대학운영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전공은 향후 면허자 수의 감소로 이어져 보건의료인의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사유별 중도 탈락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학생활동, 유급과 제적, 수업연한 초과,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알리미 내 학과 중 4년제 치위생관리학과, 계약학과, 3년제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를 제외한 치위생학과와 치위생과의 자료에서 2019년도 치위생학 전공 3, 4년제 재적학생은 17,977명이고 중도 탈락 학생은 736명으로 약 4.1%였고, 2020년도 치위생학 전공 3, 4년제 재적학생은 17,916명이고 중도 탈락 학생은 726명으로 약 4.0%였으며, 2021년도 치위생학 전공 3,4년제 재적학생은 17,818명이고 중도 탈락 학생은 780명으로 약 4.4%로 나타났다.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도 중도 탈락이 조금씩 늘어나는 실정으므로 대학과 학과의 어려움으로 봉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신입생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입생을 확보하고 난 후에도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의 내용 중 대학교 유형에서는 4년제 재학 학생들이 3년제 재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p<0.05). 이는 김성식[13]의 연구와 김창희 등[14]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3년제 학생은 4년제 학생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전공수업을 이수하는 경우[15]가 많고 이로 인해 치위생학 교과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업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학업지속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대학의 학습 환경은 고등학교와 달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 컨설팅 같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업 지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학과 스터디그룹,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전공동아리 활동이 있을수록,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과에서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지도나 행정서비스 방안 등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측정 변수들과 학업지속의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학업 관련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습 태도가 좋을수록, 사회적 영향(사회적 규범과 지지)이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영향 중 사회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지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ASE 모델 중 온라인 학습 태도와 사회적 영향 중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8]과 학업지속 영향요인으로써 사회적 영향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지지가 학업지속 의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도 동일하였다[16].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나타내며[8][1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8].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수자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학과에 상당수 재학하고 있으면 좋은 학업 분위기와 수업을 진행하면서 높은 시너지를 얻게 되어 상당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과 학업지속의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유사하다[8]. 최근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치위생학을 매우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화하기 어렵고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추가로 학업중단 요인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편입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2].

학업지속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태도($\beta=0.519$), 가족들과 지인들의 사회적 지지($\beta=0.211$), 학업 관련 특성($\beta=0.140$) 순이었다. 이는 학생의 학습 태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 관련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습 태도는 학업지속의향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태도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학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신념 및 동기를 포함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19]. 간호대 학생을 조사한 연구[19]에서는 학습 태도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학습 태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태도가 학업지속의향에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좋은 학습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아지므로, 학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습 태도를 개선하거나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족들과 지인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내용에서 이의 연구[20]에 따르면 가정의 정서적 지지와 학업 지속 안정성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수와의 관계는 대학 만족도를 높이는데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였고, 교수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1], 교수와

학생 간의 친밀성과 애정이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것[22]과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정서적 지지는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어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 관련 특성은 주로 교우관계, 전공 공부에 대한 부분, 적성 및 흥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학과 및 전공 만족도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생의 학과 및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향상되고 졸업 후 진로와 취업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23]도 있으므로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공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학과에서는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치위생학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므로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를 고취시키고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미래를 알려준다면 학생들의 학업지속의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도 탈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신입생 시기[2]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학년부터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잘 맺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학업지속의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기로 학기 초에 조사하였다면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의 조사 시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 향후 예방적 관점에서라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도 탈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도가 있는 학생들을 학기 초부터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 학생의 학업관련 특성과 ASE 모델 요인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논문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과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지도방향에 대한을 찾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에서 3년제에 비해 4년제

학제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2. 학과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수록,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전공동아리 활동이 있을수록,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업지속의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업지속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태도($\beta = 0.519$), 가족들과 지인들의 사회적지지($\beta = 0.211$), 학업 관련 특성($\beta = 0.140$)의 순이었다. 이는 학생의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관련 특성이 긍정적인일수록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지속의향은 전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터디와 멘토링 프로그램 혹은 전공동아리를 활용하거나 학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과에 더욱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좋은 학습태도와 가족과 교수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업관련 특성이 긍정적인일수록 학업지속의향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FERENCES

1. Lim E, Kwak YY: College students' leave of absence types and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0(2):231-248, 2011.
2. Park ES, Kim KH: Effects of the factors of academic suspension and college adjustment on the intention of college freshmen's school dropou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0):361-384, 2016. DOI: 10.21509/KJYS.2016.10.23.10.361
3. Kim SY: A study on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out of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stud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3(4):33-62, 2006.
4. Kim HJ, Oh SN, Cho MS: Effect of self-efficacy,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on college students' re-enrollment intention during COVID-19; focusing on the modulating effect of the habit of taking non-face-to-face lectures.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44(2):345-362, 2022. DOI: 10.33645/cnc.2022.02.44.2.345
5. Kern CW, Fagley NS, Miller PM: Correlates of college retention and GPA: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testwiseness, attitudes, and AC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1): 26-34, 2011. DOI: 10.1002/j.2161-1882.1998.tb00121.x
6. Han DW, Kang MC: Investigating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dropout based on education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1):63-71, 2016. DOI : 10.5392/JKCA.2016.16.11.063
7. Youn BR, Jang HW: Temporal aspects and determinants of college student depart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1):129-155, 2015. DOI: 10.32465/ksocio.2015.25.1.006
8. Lee DY, Seo YS, Kim YI: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ASE(Attitude-Social Influence-Self Efficacy) model factors on academic persistence of onlin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0):453-463, 2018. DOI: 10.5392/JKCA.2018.18.10.453
9. Seo YS, Kim YI: Factors affecting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intention to quit smoking: on the basis of the ASE model.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4(4):471-479, 2013. DOI: 10.12799/jkachn.2013.24.4.471
10. Kim YI, Lee CH: Predictors of mammography performance in job women. *Korean J Occup Health Nurs* 22(4):343-351, 2013. DOI: 10.5807/kjohn.2013.22.4.343
11. Kim HJ, Oh SN, Cho MS: The effects of self-efficacy, depression, and anger on first year students regarding their learning persistence in online classes under Covid-19.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6):299-308, 2020. DOI: 10.46392/kjge.2020.14.6.299
12. Jin SH, Kim GH: The effects of freshmen's adaptability to university lif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dropou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0):805-824, 2019. DOI: 10.22251/jlcci.2019.19.20.805
13. Kim SS: A exploratory study on withdrawal and transfer of Korean college students : the influence of college-choice reason and satisfaction afterward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5(1):227-249, 2008. DOI: 10.22804/jke.2008.35.1.010
14. Kim CH, Kim JH, Kim HM: Structural relationship of dental hygienist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dropout

- inten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2(2):143-151, 2022.
DOI: 10.13065/jksdh.20220016
15. Kim SH, Park JE: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dropout intention :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2):138-145, 2021.
DOI: 10.22156/CS4SMB.2021.11.02.138
 16. Park HJ, Han YS, Kim MS: A Study on the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of universities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4):567-580, 2013.
DOI: 10.18205/kpa.2013.18.4.005
 17. Eom S, Choi YJ: Moderating effects of oral health and control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care disorders and systemic health. Journal of Ko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7(3):63-69, 2019.
DOI: 10.33615/jkohs.2019.7.3.63
 18. Kim AY, Park I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 - efficacy scale.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39(1):95-123, 2001.
 19. Ha JY: Original Articles : Learning style,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57-366. 2011.
 20. Lee HH: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reshmen'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dropout in the COVID-19 situation - focused on B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1):81-88, 2022.
 21. Park MR, Yoon JW, Lee HJ: A study on college students' teacher-learner interaction, friendship, and self-efficacy impact on institutional commitment. Culture and Convergence 43(12):325-338, 2021.
DOI: 10.33645/cnc.2021.12.43.12.325
 22. Kim SY, Shin HJ: The validity of the consisting factors of students' satisfaction for their department professors' performance and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atisfactions for their department professors' performance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1):207-226. 2012.
DOI: 10.24211/tjkte.2012.29.1.207
 23. Jeong JN: The Impacts of resilience,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and sophomore yea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2):385-394. 2020.
DOI: 10.15207/JKCS.2020.11.2.385